

한국어 ‘공손성’의 문제: 높임법과 공손표현*

호정환**

1. 서론
2. 공손성: 높임법과 공손표현의 관계
3. 공손표현의 제 문제: 개인 책략적 접근
4. 결론

1. 서론

외국인이 한국어를 사용할 때 문법이나 발음이 틀렸을 때보다 언어예절을 대표하는 높임 표현에 어긋나는 경우 반감으로 받아들여지며 매우 불쾌하게 여겨지는 것은 한국적 정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사회언어학적 長幼有序 규범, 즉 공손성이 언어적으로 표현이 안되면서 불손이 직접 피부로 와닿기 때문일 것이다.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어의 공손 표현 체계의 복잡함을 매번 새롭게 느끼고 있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한국어의 공손 표현 체계는 크게 문법적 범주로 규범화된 높임 표현과 여러 상황 속에서 고정된 문법 형식을 떠나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되는 화용론적 특성을 가지는 공손 표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높임 표현은 학자들에 따라 경어법, 대우법, 존대법, 높임법등으로 불리우는데, 이렇게 ‘법’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는 성별, 나이, 재산, 직업, 사회적 역할 등에 걸맞는 언어예절이 법률과도 같이 엄격하게 지켜진다는 의미이다. 즉 한국어는 어떤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year 2011.

**中國文化大學韓國語文學系教授

언어보다도 사회학적인 인간관계가 언어학적으로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접근하는 한국어 ‘공손성’의 문제는 우선 높임법을 중심으로 학습 목표가 세워지게 된다. 즉 높임법 체계 속에서 높임 표현으로 드러나는 기본축이 만족되어야 의사소통 자체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것은 그 바탕이 되고 있는 사회적 인간관계가 표출되기 때문이다.¹

외국인은 한국어 속의 높임 표현을 규칙적인 언어 요소로 접근하게 되므로 자연히 학교문법식 표준문법을 기준으로 학습하게 된다. 한국어 초기 문법서에서는 높임을 품사, 선어말어미, 활용부분에서 다루다가 현대로 오면서 특히 학교문법에서는 따로 하나의 ‘경어법’ 개념으로 묶어서 다루어지고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현장에서 종종 관찰되는 것은 학습자는 최상급의 높임 표현이라고 사용하지만 공손성의 측면에서 보면 무례한 표현인 경우가 있다. 한국어 학습자가 배우는 문법 범주로서의 학교문법식 높임 표현만으로는 외국인 화자가 궁극적 목표로 하는 성공적 의사소통의 관건이 되는 공손성을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언어학적 높임법(sociolinguistic honorifics) 규범에는 하자가 없지만 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화용론적 공손성(pragmatic politeness) 의도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공손성을 보편적 원리 혹은 격률 개념으로 설명하는 Lakoff(1973), Leech(1983) 등 학자들이나 공손성을 책략 개념으로 접근하여 뛰어난 논의점을 남기고 있는 Brown & Gilman(1960), Brown & Levinson(1987) 등의 학자들은 한결같이 공손성에 관한 문제를 ‘높임’ 문법 범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하나의 틀로 이해하려 하고 있다. 또한 조준학(1979, 1980)을 시작으로

¹ 본 연구에서는 문법 범주로서의 공손성은 ‘높임’ 개념으로 접근하여 ‘높임법’, ‘높임 표현’, ‘높임 체계’로 표현되며, 화용론적 범주로서의 공손성은 ‘공손표현’으로 접근하여 다원화된 언어 형식으로 설명된다. 본고에서 ‘높임’의 문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공손성’ 학습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비존대 또는 낮춤말을 배제한 존대 또는 존경 표현만을 가리킨다. 또한 연구 결과를 보면 높임 표현에서의 사회적 규범 성격과 양상은 시대와 환경에 의하여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다고 보고되어 지는데, 본고에서는 높임 표현 규범에 관한 것을 개편된 7 차 교육 과정의 고등학교 국어 문법 교과서 및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책들을 참조한다. 교육 인적 자원부(2005), 『고등학교 문법』, 교학사.

하여 한국어 속 공손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김희숙, 1991; 김선희, 2001; 이정복, 2001; 구현정, 2004; 김명운, 2009 등)도 기존의 경어법과 공손 표현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이해하기 보다는 공손 표현 실현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만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특유의 높임 체계, 즉 사회적 규범의 특성을 가지고 언어 형식에서 고정된 문법으로 나타나는 높임법을 중심으로 거기에 상보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비문법적 범주에 속하는 공손 표현의 여러 양상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2. 공손성: 높임법과 공손표현의 관계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회언어학적 공손성 문제는 언어예절과 관련되어 중시되고 있다. ‘공손성(politeness)’이란 용어가 언어학계에 처음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Lakoff(1973)에 의해서이다. 영어권에서 공손성이 연구 주제로 처음 거론되면서 그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영어에서는 한국어와 같은 높임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도유럽어족 굴절어에 속하는 영어는 우랄알타이어족 교착어이자 굴절어 특성도 보이고 있는 한국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언어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문법 형태와 그에 따른 의미들이 교착어의 교착은 조사나 접미사 혹은 선어말어미 같은 언어 성분을 갖다 붙이는 것에서, 굴절어의 굴절은 단어의 어미에 해당하는 부분을 변형시킴으로써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참고적으로 이곳 학습자의 모어인 중국어는 고립어로서 단어의 변형이 거의 없고 조사나 접미사도 없이 사용된다. 아래 예를 보면 한국어에서는 높임 성분이 교착이 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굴절어인 영어나 고립어인 중국어에 비해 한국어에서 높임 체계가 엄격하게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높임 접미사 ‘님’, 높임 격조사 ‘께서’, 높임 어휘 ‘식사’, 높임 선어말어미 ‘시’, 높임 종결어미 ‘-습니다’ 등 높임 문법적 요소를 교착시키거나 굴곡시켜 높임을 실현시키고 있다.

(1) 가. 이 선생님, 아버지께서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십니다.

나. Mr. Lee, father has lunch at home.

다.李先生, 父親在家吃午餐.

대체적으로 한국어에서 공손성의 문제는 문법 현상의 일부분으로서 높임 표현의 문제로 다루어왔던 것이 조준학(1979) 연구 이후 영어의 공손 이론이 한국어에 적용되면서 화용적 원리나 언어 사용상의 책략으로서 공손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 (2) 가. 오늘 복사할 책을 가져오십시오.
 나. 오늘 복사할 책을 가져오시지요.
 다. 오늘 복사할 책을 가져다 주실래요?
 라. 오늘 복사할 책을 가져다 주시겠어요?
 마. 오늘 복사할 책을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바. 오늘 복사할 책을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사. 오늘 복사할 책을 가져다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 오늘 복사할 책을 가져다 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2-가)와 (2-나)는 상대높임 종결어미를 설명하는 학교문법 등 급체계² 중 최고 높임 표현인 ‘-하십시오’와 ‘-시지요’를 쓰고 있어 문법적으로 볼 때 최고 높임을 타나내는 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이런 높임 표현을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명령형과 청유형에 내포된 강한 힘이나 권력으로 인하여 압력을 가하는 화자의 뜻이 은연중 내비치면서 공손하게 안 들리기 때문이다. 대신 (2-다)에서부터 (2-아)와 같이 의문형 등 다양한 간접화행 형식을 통하여 발화 내용을 요청 양상으로 전환하여 공손성을 실현하거나 혹은 기타 공손 표현을 모색하게 된다. 즉, 문법적인 높임 체계에서의 규범적이고 형식적인 높임법이 청자에게 공손으로 안 들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화자는 주어진 화용적 맥락에서 가장 적절한 공손 표현을 찾게 된다. 여기서 개인의 공손 책략이 관여하게 되는데 여기에 바탕이 되고 있는 화자의 의식적이며 선택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적극적 공손성으로 파악된다. 공손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언어 형식 중 화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언어사용상 책략을 선택한다.³

² 교육인적자원부(2005), 『고등학교 문법』, 교학사.

³ 책략적 공손 표현은 사실상 언어 보편적 현상이지만, 이미 높임 체계가 확실히 있는 한국어의 경우 화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고정

선택된 공손 표현은 높임법에 변화를 주며 상보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 공손성은 문법적인 높임법 조건만 갖춘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결국 한국어 공손성은 문법 범주인 높임법 요소와 함께 개인적이며 비문법 범주에 속하는 화용론적 공손 표현 요소가 함께 충족되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화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충돌을 최소화하고 상호 이익을 최대화하는 매끄러운 의사소통이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높임법과 공손 표현 관계에 대하여 우선 살펴 볼 것은 높임법은 법률적 성격을 띠는 사회 규범 같은 것이라면 공손표현은 도덕적 성격을 띠는 개인 책략 관계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어의 경우 높임법은 사회 공동체 성원 사이에서 절대적인 규율로서 이것에 의존해야 어떤 대화도 성립이 가능하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대체로 대화 자체가 단절되는 곤란에 처해진다는 뜻이다. 높임법이 꼭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의무적(*obligatory*) 언어 규범으로 높임과 안높임으로 인식되는 대립관계라고 한다면 공손 표현은 개인의 의도에 따라 그 정도가 결정될 수 있는 선택적(*optional*) 언어 책략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속 공손성의 문제는 높임법이라는 문법적이며 규범적인 언어 장치를 바탕으로 책략적으로 다양하게 선택되어 실현되는 공손 표현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3) 높임법과 공손표현의 관계

- 가. 규범적 높임법: 높임과 안높임 대립으로 구분되는 필수조건
- 나. 책략적 공손표현: 공손과 비공손 정도로 구분되는 충분조건

높임법이 규범화된 형태를 가지고 높임과 안높임의 고정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 비해서 공손 표현은 화용론적 맥락에 따라 공손성 정도와 의미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 공손성 이론의 하나로 흔히 언급되는 Brown & Levinson(1987)의 연구에서는 공손성을 체면이라는 개념과 관련시켜 언어사용상 여러 가지 공손 책략은 결국 체면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관건 요인을 힘(*power*)과 유대(*solidarity*)의 역학적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다.

화된 높임법에 상호보완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공손 표현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것이 본 연구에서 가리키는 적극적 공손 표현 개념이다.

힘에 중심이 넘어가면 체면 위협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공손 표현이 엄격해지고, 유대감이 중심이 되면 체면 위협이 감소되면서 공손 표현이 느슨해진다고 하며, 화자는 적절한 공손 표현 책략을 통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화를 무리없이 한다는 것이다.⁴ 높임 체계가 확실한 한국어에서는 높임법 사용이 축소되거나 느슨해지는 공간에 공손 표현의 책략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일견 모순되는 듯이 보이는 높임과 공손의 관계는 공손성이 실현되었을 때보다 실현되지 않았을 때 더 인식되기 쉽다는 점으로 접근하면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대체로 공손성이 실현된 것은 무표적이다. 즉 ‘공손성(politeness)’으로 감지된 것은 사회 속의 당연한 표현으로 넘어가기 쉬운 반면 공손성이 실현되지 않거나 불쾌한 어감을 주는 표현은 대부분 유표적으로 인식된다. 즉 ‘비공손(non politeness)’ 혹은 ‘불손(impoliteness)’으로 인식된 표현은 의도적이든 아니든간에 청자의 의식을 일깨워주기 마련이다. ‘공손성(politeness)’을 상대방에게 공경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보편적 태도라고 본다면 ‘공손성’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비공손’과 ‘불손’을 함께 다루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습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학습의 목표가 될 수 없는 ‘불손’, 즉 공손성이 실현이 안되거나 혹은 실현이 미처 못된 불손 표현을 모두 비공손 개념에 포함시켜 ‘공손’ 대 ‘비공손’ 두 가지 대립 개념으로 접근을 시도한다. 그래서 ‘비공손’의 경우 그 자체 개념에서 뜻하는 높임의 중립(neutral)으로서가 아닌 높임 표현에서 공손성이 나타나지 않는 ‘비공손(not polite)’ 경우를 통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⁵ 그러나 비공손은 때로 공손 표현이 아닌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불손 표현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남겨둔다.

⁴ Brown & Levinson(1987)의 체면이론은 결국은 화자 자신의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는 유대감을 높히는 데 비중을 두고 있으며, 그 책략으로 제기된 긍정적 공손(positive politeness)과 소극적 공손(negative politeness) 개념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유대감을 높이기 위하여 상대방을 기분 좋게 혹은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⁵ 허상희(2009: 203). 공손성의 화용적 조건으로 ‘공손, 불손, 비공손’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중 공손성 표현에서 강조되는 높임 표현에서 공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강조하기 위해 공손과 비공손으로만 구별한다.

하나의 발화가 공손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문법적인 조건으로서의 높임법 규칙들이 우선 지켜져야 하며, 거기에 화용론적 맥락에서 개인적인 책략으로서의 공손 표현이 충분조건으로서 만족되어야만 화자가 의도하는 의사소통 목적 달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게 된다. 높임법은 그 바탕이 되는 사회적 인간관계가 기본적으로 드러나며, 화용론적 공손 표현은 개인의 공손 책략에 관여하는 비교정적 언어 형식으로서 문법적 조건 외에 화자와 청자의 관계, 대화의 장면, 분위기 등 전체 상황적 관계를 나타낸다. 국내에서 화용론적 공손 표현에 대하여 아직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어에는 높임법 체계가 뚜렷하게 있으므로 공손 표현을 별도로 다룬다는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 보인다. 한국어 속 공손 표현의 문제는 서구어와는 달리 높임법을 기반으로 성립되므로 문법적 높임 체계와의 관계 이해가 우선적되어야 할 것이다. 높임법과 연관시켜 공손 표현 실현 양상을 설명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일이다. 한국어 높임법은 그 체계가 매우 복잡하여, 어디까지가 높임 체계며 어디서부터가 공손 표현 실현 현상이라고 분명하게 구분을 짓는 한계가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언어이론의 측면에서 공손 현상을 본다하여도 문법적 구조와 화용론적 측면이 한꺼번에 거론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구분이 어렵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속에서 공손성을 드러내는 언어적 장치에 초점을 맞추어 높임법을 바탕으로 여기에 상보적으로 나타나는 공손 표현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⁶

⁶ 실제 언어 상황을 보면 개인에 따른 공손성 관여, 즉 수의성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높임법 속에 나타나는 수의성 문제는 비교적 제한된 형태로 나타나는 소극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개인이 목적 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선택되어 사용되는 화용론적 공손 표현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 적극적 특성을 보여준다. 규범화된 높임법 안에서 수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주체높임에서 규범으로서의 주체높임 ‘-시’는 필수적 조건이다. 구본관(2011), 扈貞煥(201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주체높임을 실현하는 ‘-시’의 탈규범성 용례들이 굳어져 사용됨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주체를 높이는 기능이라기보다 상대 청자를 높이기 위한 수의성 의미 기능 변화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의적으로 첨가될 수 있는 주격조사 ‘-께서’의 사용도 규범이 아니라 책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주체를 높이는 일부

외국인이 한국어 공손성을 학습하게 될 때 우선 규범으로서의 높임법인 주체높임, 청자높임, 객체높임에 출발점을 둔다. 높임법은 대체로 고정적인 형식과 의미를 강조하게 되면서 옳고 그름의 대립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관찰되는 것은 높임법 속에서도 공손성이 관여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이다. 공손표현에서 나타나는 공손성 문제는 대립보다는 정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므로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특히 어려운 영역이다. 한국어 높임법을 기본축으로 하여 상보적 요소로서 적극적으로 관여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공손 표현 제 양상들에 대한 이해와 학습은 매우 중요한 교수 목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3. 공손표현의 제 문제: 개인 책략적 접근

어느 언어를 막론하고 공손성 문제는 언어예절과 관련되어 중시 되는데, 한국어에는 규범화된 높임법 체계가 확실히 성립되어 있어서 이것이 바탕이 안되면 대화 자체가 시작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되었다. 체계적으로 고정된 듯한 높임법 속에서도 소극적이거나 공손성의 관여가 수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도 참고로 언급되었다. 적절한 높임법은 공손성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필수조건이지만 높은 화계의 발화가 반드시 높은 정도의 공손성을 실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즉 한국 사회에서 규범으로서의 높임법은 필수적이지만, 화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면 높임법 이외에 적절한

높임 어휘도 규범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언어예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상대높임 체계 속에서 가장 예민하게 공손성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것이 화계에 따른 종결어미이다. 가장 전형적인 공손성의 관여를 보면, 합쇼체 ‘-하나다’와 해요체 ‘-요’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扈貞煥(2009)에서 이른바 2인칭대명사를 대행하는 다양한 3인칭명사 사용에 관한 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 높임법에서 사회적 인간관계가 가장 예민하게 드러나는 것이 2인칭대명사인데, 한국어의 경우 존경할 상대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2인칭대명사가 없다. 이러한 언어 현실은 그것을 대신하여 사용할 3인칭명사를 아주 다양하게 발달시켜 왔다. 다시 말하면, 공손성이 관여되어 그것이 최대로 표출될 수 있는 다양한 3인칭명사 호칭어(혹은 지칭어)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객체높임을 보면 실제 언어 사례에서 ‘-께’ 사용이 고정된 높임 규칙으로서가 아닌 공손의 한 선택 사항으로 관여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공손 표현이 상보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의 공손성 전략은 개인적이며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다양한 공손 표현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공손성의 적극적 관여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언어적 공손성 (politeness)이란 개념을 처음 소개한 Lakoff(1973) 이후에 공손성에 관한 일반 원리는 지금까지 크게 두 방향으로 논의되어 왔다.⁷ 첫째는 Lakoff 연구를 시작으로 공손성 원리 자체를 특정한 원칙 혹은 격률(maxim)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다(Lakoff, 1973; Leech, 1983; 조준학, 1982 등). 둘째는 Brown & Levinson 연구를 대표로 공손성을 문화 보편성 현상으로 보고 공손성 원리를 개인에 따르는 전략(strategy) 개념으로 파악하려 하는 것이다(Brown & Gilman, 1960; Brown & Levinson, 1987; Ho-min Sohn, 1983; Ide, 1989; 이정복, 2001 등).⁸ 두 접근 모두 언어 사용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명료성’ 측면보다 화용론적 원리인 ‘공손성’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서구사회에 비하여 예의범절을 더욱 중시하는 동양사회에서는 인간관계에서 개성있는 인물보다는 조화하는 인물을 가치있게 평가해 왔다. 윤태림(1964)은 동양사회 중 유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한국은 유교의 인간관에 근거하여 사회적 규범 행동이 형성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유교에서의 인간관은 사람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자로 보는 평등한 인간관계가 아니고 종적 관계에서 본 불평등한 차별적 인간관계이다. 차별적이며 종적 관계로 표현되는 불균등한 힘의 관계와 사회적 위계체계를 기호화한 것이 한국어 높임법이라 할 수 있다. ‘예의바르다’라는 것은 이 위계 체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어 높임법에서 하대 표현이 가지는 권위 및 지배로서의 권력 의미와 공대 표현에서 나타나는 복종 및 겸손으로서의 연대 의미는 친화감의 차원과 관련하여 지칭과 호칭이 각각 ‘존경-거리감’, ‘겸손 -친화감’의 짝이 됨을 지

⁷ Lakoff(1973: 298-304). 공손규칙(Rules of Politeness)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격식성(부담을 주거나 강요하지 말 것), 주저함(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것), 동등함이나 친 밀감(우호적인 느낌을 주도록 할 것)을 들 수 있다.

⁸ Brown & Levinson(1978: 66-70). 체면위협행위 최소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즉 다른 사람의 부정적 체면(negative face)을 보호하고, 자기 중심의 적극적 체면(positive face)을 방어하는 것을 말한다.

적한 Brown & Gilman(1960)의 ‘힘(power)과 유대(solidarity)’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Brown & Gilman(1960)이 제시한 힘과 유대 개념은 공손성을 접근하는 주요한 이론 틀로 국내외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여러 측면에서 설명이 시도되어 왔으며, 그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온 것은 공손성을 여러 다른 언어 형태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화 보편적인 일정한 공손 기제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제시한 Brown & Levinson(1987)의 연구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어와 관련시켜 공손성이 문화 보편적이지만 문화 특성에 의한다는 논의점을 제시한 것은 Ho-min Sohn(1983) 연구에서이다. Ho-min Sohn은 수직적인 힘과 수평적인 유대의 역학적 관계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대인관계에서 표출되는 보편적인 언어 현상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대체로 힘의 차원에서는 신분, 연령의 높고 낮음에 따라 존경과 거리감의 정도가 차별화되면서 존경과 겸손으로 나타나고, 유대의 차원에서는 멀고 가까움에 따라 거리감과 친화감 정도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한국어도 전통적인 수직사회의 특성인 종적 대인관계에서 보였던 힘의 차원이 점차 서구화를 통하여 수평사회로 이동하면서 힘과 유대의 차원이 함께 혼재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에서 ‘존경-거리감’은 주로 사회규범적 높임법 화계에 따르는 힘의 차원이며, ‘겸손-친화감’은 수평적 관계에서의 유대 차원에 해당한다고 볼 때, Ho-min Sohn(1983)에서 제시된 동일한 화자가 하나의 동일한 담화 안에서 동일한 청자에게 ‘-하십시오’체와 ‘-요’체의 두 높임법 화계를 교체하여 쓰는 혼재된 현상은 ‘힘의 관계’와 ‘유대의 관계’의 정도를 조절하려는 화자의 적극적인 의지 혹은 의도적인 노력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⁹ 총체적인 한국어 공손성 틀로 볼 때, 공손성은 규범적 높임법과 화용론적 공손 표현으로 실현되는데, 소극적 공손성 관여는 고정된 높임법 안에서 일부 높임규칙의 변화 양상으로 나타나며, 적극적 공손성 관여는 화용론적 맥락에서 개인적이며 책략적 성격을 가지고 다원화된 공손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Ho-min Sohn 연구에서 시사되는 것은 화자 이익이라는 목적 지향적 의도를 가지고 ‘겸손-친화감’

⁹ 이정복(2001: 47). 유송영(1994) 재인용.

관계를 형성하려는 화자의 노력은 고정된 높임법 체계 속에서도 소극적이거나 공손성이 관여되어 말 단계 변동 현상 등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현상과 관련하여 더 확대된 맥락으로 화자의 노력에 의하여 실현되는 적극적 공손성 관여 개념이 화용론적으로 다원화되어 표출되는 공손 표현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높임법을 전제로 하되 높임법에 상보적으로 나타나는 화용론적 공손 표현에 대한 설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룰 공손 표현의 문제를 Ho-min Sohn에서 설명되는 ‘존경-거리감’과 ‘겸손-친화감’ 틀로 이해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존경-거리감’이 드러나는 언어 표현은 대부분 사회적 신분 및 연령 그리고 친족관계의 위아래 등에 기인하는 높임법 사용에서 흔히 관찰되는 것으로 이것이 ‘존경-친화감’으로 짝 지어 지기는 매우 드물다고 본다. 왜냐하면 ‘존경’은 수직적 힘의 차원으로서 화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사회적 규범으로 고정된 높임 표현에 속하는 데다가 힘의 차이가 클수록 ‘친화감’이 형성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친화감을 높여줄 수 있는 공손성의 전제가 ‘겸손’이라는 것이 연구들에 의하여 일관되게 지적되고 있다(조준학, 1980; Leech, 1983; Ide, 1989 등). 이와 같이 화자가 자신을 낮춤으로써 청자를 높이는 겸손 책략은 ‘겸손-친화감’ 짝을 이루어 공손성을 실현하게 된다. 김선희(2001)에서도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책략의 성격을 떠는 공손성의 중요한 원리가 ‘겸손-친화감’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예로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예의바르다’라는 언어적 행위를 공손한 말씨로 보고 사람됨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왔다. 서구사회에서도 화자의 기분을 헤아리며 예의를 차리는 공손한 언행을 중시해왔다. 화용론적 공손 표현은 언어 형식에서 고정된 문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언어 책략으로 사용되는 다원화된 공손 표현 양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겸손-친화감’을 드러내기 위한 공손성 실현 요소들은 간접성과 우회성이 내포된 공손 표현들로 구성된다. 간접화와 객관화로 실현되는 암식적이고 함축적인 공손성 의미 특성이 개인의 책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간의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 정리해보면, 힘과 유대에 관련하여 나타나는 한국어의 공손 표현의 중

요한 원리는 ‘겸손-친화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것은 언어표현의 간접성을 통하여 다원화된 양상으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화자는 개인 이익에 순응하는 적절한 공손 표현 즉 적절한 공손한 말씨를 선택하여 화자의 겸양 태도가 나타나게 함은 물론 청자로 하여금 그 인격이 존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외국인 학습자는 언어 표현의 유형화와 규칙화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다원화된 공손 표현들을 유형화, 규칙화하기는 쉽지 않다.¹⁰ 그것은 높임 표현과 달리 공손 표현이 공손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양자 대립체계가 아니고, 얼마만큼 공손함을 갖게 되느냐 하는 ‘정도’에 따른 상위언어적 현상이기 때문에 공손 표현에서 고정적이고 체계화된 문법으로 나타나지 않고 다원화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원화로 나타나는 공손 표현을 유형화시키기 위해 기능론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공손 실현 요소로 작용하는 주요 의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능론이란 공손성의 의미, 공손성이 생성되는 담화상에서의 담화 및 화용론적 요인, 그리고 공손성에 대한 지각이나 인지 같은 인간적인 요소등이 포괄되어 드러나는 의미적 특성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¹¹ 여기에서 한국어 공손 표현 속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의미적 특성은 화자가 발화 내용을 우회적으로 다루는 간접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공손 정도는 간접성을 드러내는 언어적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공손 표현 양상을 담화표지로서의 문법화(grammaticalization) 개념과 문법 범주 안에서 이해가 가능한 문법성(grammaticality)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을 시도한다.

¹⁰ 유혜령(2010: 378). 공손성이 언어 보편적 현상이지만 공손성을 나타내는 언어 형식은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음운적 층위, 형태적 층위, 어휘적 층위, 통사적 층위, 화용적 층위 등 언어 전반에 걸쳐 공손성이 실현되고 있다.

¹¹ 이기중(2001: 20-21).

3.1. 문법화(담화표지) 공손표현¹²

3.1.1. 축소 표현

- (4) 가. 제게 메일 좀 해주시겠습니까?
 나. 노래 하나 부르시겠어요?
 다. 차라도 할까요?
 라. 한 십만 원쯤 빌려주세요.
 마. 잠깐, 이리와 보세요.
 사. 차린 것은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아. 제가 배운 것(가진 것)은 없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어에서 ‘좀’이나 ‘하나’ 담화표지는 그리스어 지소사(diminutive)인 ‘작음’을 나타내는 원형적 기능에서 왔으나 확대하여 겸손과 친화력을 나타내기 위한 화자의 의도적 책략으로 쓰인다.¹³ 이 표현은 한국어에서 긍정적인 공손 책략으로 활용된다. 대체로 화자가 상대방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표현이거나 또는 화자 자신의 재산, 지위, 재주, 학식, 성공 등에 대한 자기 칭찬을 축소화하여 ‘겸손’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로 표현된다. 또한 Brown & Levinson(1987)에서와 같이 명령, 요청, 제안 등은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해하게 되므로 체면-위협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고 임의성을 늘려주는 그래서 화자와 청자간의 상호 친밀한 화맥을 만들어 내기 위한, 즉 ‘겸손과 친화감’을 나타내는 적극적 체면치레(positive-face needs)로 설명할 수 있겠다.¹⁴

3.1.2. 보류(주저) 표현

- (5) 가. 글쎄, 이 시간에 오실 수 있으세요?

¹² 이정애(2002: 68). 한국어에서는 오래 전부터 ‘문법화’라는 개념에 앞서 ‘허사화’가 이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표현이 탈범주화하여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발화에서 다양한 담화적 기능을 수행 하는 것을 말한다.

¹³ 김선희(2001: 93-101).

¹⁴ 이밖에도 최소화 의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사로 ‘-이나’, ‘-이나마’를 들 수 있고, 활용어미로서는 ‘-기로서니’ 등이 담화표지 기능을 하기도 한다.

나. 저기, 이 말을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다. 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요?

라. 참,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글쎄’나 ‘저기’ 같은 보류적 태도를 표현하는 담화표지는 직접적인 표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 겸손과 친화력을 주게된다.

3.1.3. 개인 관점 표현

(6) 가. 내가 보기에 틀린 것 같은데요.

나. 내 생각으로는 거기에 안 가는 게 더 좋겠어요.

다. 죄송하지만, 조금 주시겠어요?

라. 실례지만, 문화대학은 어떻게 가는지요?

마. 미안하지만, 이번에 그 사람에게 표를 줄 수 없어요.

화자는 발화에서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는’ 등의 표현을 첨가함으로써 생각이나 의견이 개인 관점일 뿐 청자에게 억지로 주입하는 것이 아닌 것을 강조한다. 또한 화자는 자신 개인의 부탁이나 요구 혹은 실수 등 때문에 청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발화 시작을 미안한 심리 표현으로 우선 청자의 부담 심리를 완화시키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청유나 권유 발화에 포함된 요구의 직접성을 간접화함으로써 약화시킨다.

3.1.4. 불확정 표현

(7) 가. 혹시(나) 저번에 언급한 학생을 기억하시는지요?

나. 아마(도) 이 일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지요?

다. 혹 만 원 있으면 빌려줄 수 있어요?

라. 어쩌면 이것을 부탁해도 될까요?

여기 부사어들은 의미가 허사화되어 ‘그럴리는 없지만’을 전제한 불확정성을 증가하여 청자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화자의 의도는 분명하지만 청자에게는 미정의 태도가 있음을 암시함으로 강압된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이다.

3.2. 문법성(문법범주) 공손 표현¹⁵

3.2.1. 복수 표현

- (8) 가. 우리 남편은 공무원이에요.
 나. 지금 이야기들 하는 것 하나 틀린 것 없어요.
 다. 의견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라. 우리가 결정하면 다들 따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손의 책략으로 복수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Brown & Levinson(1987)의 적극적 공손에서 언급되었다. 이것은 동질 성을 확보하고 상호의존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은 가족주의의 확대로 동질성과 친숙성을 확인하려는 친소의식이 강하여 ‘우리주의’ 의식형태가 다른 문화보다 만연하다는데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다.

3.2.2. 특정의 보조용언 표현

- (9) 가. 이 숙제 좀 해 주세겠어요?.
 나. 이 숙제 좀 해 드릴까요?
 나. 이 숙제 좀 해줘 보시겠어요?.
 다. 이 숙제 좀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보조용언의 문법적 기능은 시제, 양태, 사동, 피동, 부정 등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 그 의미적 특성에 의해서 ‘겸손과 친화감’을 높일 수 있는 공손 기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즉 공손 장치로 기능하게 되는가의 여부는 그 보조용언이 갖는 의미 특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다/드리다’의 수혜 보조용언, ‘보다’의 시행 보조용언, ‘싶다’의 추정 보조용언 등을 들 수

¹⁵ 여기 문법성에 제시된 일부 표현들, 예를 들면 복수 접미사 ‘들’, 가정 표현 또한 어휘 등을 문법성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법적 분석보다는 화용적 원리에 입각하여 선택적 형식으로 실현되는 다양화된 공손 표현의 유형화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형태·통사적 측면에서 의미범주별로 분별될 수 있는가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특히 ‘어휘’ 영역으로 말하자면 본 연구의 특성이 이론적 분석이라기보다는 한국어교육이라는 학습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하였으므로 어휘를 문법성에서 설명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참고로 2002 년 제 7 차 교과과정에서 ‘문법’ 영역에 ‘어휘’를 신설하였다. 남기심·고영근(1993: 435), 『표준국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있다.¹⁶

3.2.3. 특정의 동사구 표현

- (10) 가. 제 사업에서 돈이 좀 벌릴 것 같습니다.
 나. 김 선생님이 끝마무리를 할 모양입니다.
 다. 학생들이 이 의견에 찬성하는 듯합니다.
 라. 이 문제가 꼭 나올 성싶은데요.
 마. 그렇게 무리를 하더니 병도 날 법하지요.

여기에서는 모두 짐작과 추측 표현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태를 확실하게 객관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화자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혹은 주관적인 의견이 뚜렷함에도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아마 그럴 것이라는 개연성 화법을 통하여 화자가 자신의 주관적 인식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청자에 대한 배려로 전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완곡한 거절, 권유, 충고, 조언 등 직접적인 표현이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책략적으로 쓰여진다.

3.2.4. 선어말어미 '겠' 표현

- (11) 가. 1근에 천원 되겠습니다.
 나. 예, 잘 알겠습니다.
 다. 월급이 이만하면 충분하겠습니다.
 라. 나가실 때 문을 닫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 문 좀 열여 주시겠습니까?

공손 표현으로 사용되는 동사구의 일환으로 특별히 중요시되는 선어말어미 ‘겠’을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겠’은 ‘짐작’이라는 인식 작용 이외에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완곡어법적 기능도 수행함을 볼 수 있다. 이미 확인된 사실까지도 화자는 ‘겠’이 지닌 ‘불확실성’을 활용하여 어떤 표현을 완화시키려고 한다.¹⁷ 즉 단언으로 오는 비공손 어감을 불확실성 언어로 바꿈으로써 공손한 어감을 주도록 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겠’은 자기

¹⁶ 보조용언 ‘보다’, ‘싶다’, ‘주다/드리다’ 등의 의미특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있다.

¹⁷ 김차균(1981:42)에서는 ‘겠’이 ‘불확실성’ 이외에, 부차적으로 얹혀 들어오는 상황 판단을 통해 서술보다는 청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보았다.

자신을 적극 방어하는 사회언어학적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겠’을 통한 공손 책략은 확인한 사실을 단언함으로써 청자와 불편한 관계를 맺을까봐 불확실한 인식 세계로 도피하는 데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¹⁸ 특히 (11-다)와 (11-라)에서 같이 자신의 소망이나 바람을 상대에게 정중히 부탁하거나, 상대와의 관계가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없는 관계를 고려하여 가설적 형태를 설정하여 요구나 명령 어감을 완화하고 있다.

3.2.5. 선호 표현

- (12) 가. 내년에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갔으면 해요.
 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모님 부담을 줄여주고 싶어요.
 다. 이 계획을 빨리 끝내면 좋겠습니다.
 라. 이 밝은 웃은 입는 게 좋아요.

화자의 선호 발화에는 화자 자신의 희망이 내포되어 있다. 화자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은 청자로 하여금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해 부담스러워하는 심리를 경감시킨다는 점에서 청자의 부담을 줄이는 하나의 책략이 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¹⁹

3.2.6. 가능성 표현

- (13) 가. 이 일을 부탁할 사람은 김선생님밖에 없어요.
 나. 사장님의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다. 오늘 이 일을 마칠 수 없어요.
 라. 파티를 준비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가능성 표현은 대부분 화자의 의지나 거절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불가피성이나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간접성 의미를 가지고 완곡하게 전달된다. 가능성 표현이 요청이나 제안으로 쓰일 때 청자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질문하는 형식을 통해 청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므로 공손성이 전달된다. 이것은 아래 의문 표현에서 드러나는 공손성 실현과 맥락을 같이 한다.

¹⁸ 이해영(1996: 85). 선어말어미 ‘겠’과 같은 확정 사태에 대하여 비확정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공손을 나타내고자 하는 활용어미로 ‘-을걸’, ‘-지’를 들었다.

¹⁹ 구현정(2004: 6).

3.2.7. 허용 표현

- (14) 가. 놀려도 좋아요. 저는 이것을 꼭 하고 싶어요.
 나. 살이 찌도 괜찮아요. 건강하게 보이니까요..
 다. 다음 창구에서 돈을 내시면 돼요.
 다. 옷을 단정하게 차려만 입으면 되겠어요.

허용 표현은 직접적인 명령이나 요청의 의미를 서술형으로 전환시켜 선택의 여지를 주는 간접성을 표출하게 된다. 청자에게 어떤 상황이나 반응이든지 허용한다는 의사를 주므로 공손한 어감을 주게 된다.

3.2.8 가정 표현

- (15) 가. 할 수 있다면 준비해 주세요.
 나. 가능하면 이 일을 맡으시겠어요?
 다. 가능하거든 연락 주세요.
 라. 돈이 있거든 한국에 한 번 갔다 오세요.

연결어미 ‘-면’과 ‘-거든’이 가지고 있는 가정성은 현실의 일을 가상공간으로 이동시켜 간접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발화 내용이 화자의 강한 주장이나 명백한 의사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손표현의 일부로 설정될 수 있다. 가정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면’과 ‘-거든’은 모두 조건을 나타내지만 ‘-면’은 가능하거나 불가능하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반면, ‘-거든’은 비현실적인 사태에 대해서는 제시될 수 없는 것으로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조건화한다.²⁰

3.2.9. 피동 표현²¹

²⁰ 이해영(1996: 116-119). 조건을 나타내는 가정 표현 공손성 연구는 구현정(2005)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²¹ 유혜령(2010: 397-398). 피동 표현의 공손성 이외에 사동 표현인 ‘-도록 하다’도 간접적인 진술 효과를 보이며 공손 표현으로 쓰여질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이 과업을 마칠게요.’보다는 ‘이 과업을 마치도록 할게’

- (16) 가. 정말 잘 선택했다고 생각됩니다.
 나. 개선할 점들이 보입니다.
 다.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 제가 이가인 엄마 되는 사람인데요.
 마. 난처한 문제가 풀렸어요.

피동 표현을 통해서 화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주장하기보다는 인지된 상황이나 변화된 사태의 경험자로서 그 상황이나 사태를 전달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 화자의 주관 개입의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이것은 간접화에 내포된 ‘거리 만들기’ 시도가 되는 것이다. 화자와 청자가 친숙하지 않거나 사적인 영역을 침해받지 않고자 할 때, 서로간에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공손 책략으로 피동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²²

피동 표현에서의 공손성 실현은 의미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²³ 즉 스스로 하고도, 문제가 풀린 것으로 기술함으로써 본인의 능력을 낮추고, 상대가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까지도 축소할 수 있다. 상대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공손을 나타내고 있다.

3.2.10. 간접인용 표현

- (17) 가. 다들 이 일이 어렵대요.
 나. 사람들이 잠깐 쉬고 하재요.
 다. 선생님이 저보고 이 일을 책임지래요.
 라. 교수님 수업이 그렇게 어렵대요.

간접인용은 대부분 축약 형식으로 사용되며 간접인용을 통하여 화자의 의견이나 주장이 드러나지 않게 되므로 거리를 가지는 객관화된 진술은 청자로 하여금 보다 부담 없이 판단하게 할 수 있

요.’가 더 공손하게 감지됨을 지적하고 있다.

²² 여기서 피동 표현은 엄격하게 피동구문 문법 구조는 아니다. 다만, 의미로 볼 때, 피동성을 가지는 표현이라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서정수(1995)에 보면, 피동구문으로: 1. ‘-어지다’ 2. ‘-되다’ 3. 그밖의 ‘받다’, ‘당하다’ 등을 들고 있다.

²³ 임흥빈 외(2001: 300). 피동태는 일정한 동사의 굴절 또는 일정한 문법적, 요소나 구성에 의하여 문장의 주어로 나타난 대상이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입장이 아니라, 문장의 다른 성분에 나타난 대상에 의하여 어떤 행동이나 작용을 받는 의미론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을 것이다. 또한 화자는 단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해들은 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자신의 발화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므로 화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감소된다.

3.2.11. 간접화행 표현

- (18) 가. 제가 일이 좀 바빠서...
 나. 저희 상품도 좋은데...
 다. 글쎄요. 김 선생님이 이 일을 꼭 맡아주시든지...
 라. 네,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네요.
 마. 정말 힘든걸요.
 사. (만원 버스에서 하차하려 할 때 앞 사람에게)
내리실 거예요?
 아. (늦게 야간 근무해야 할 동료 직원에게)
이것까지 마치고 가실래요?

어떤 사태에 대한 화자의 의향이 직접 드러내면 청자는 일단 압력으로 느껴지며 방어적인 상태가 되기 쉽다. 여기서 화자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 혹은 요구 등을 말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의향을 강하게 개입시키지 않는 표현으로 청자가 가지는 거부감을 경감하고자 한다. 이때 사용되는 공손 전략은 활용어미의 의미적 기능을 이용하여 단순화, 즉 단순 제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대표적인 접근으로 (18-가), (18-나), (18-다) 같이 연결어미를 이용하여 말흐리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²⁴, 또한 (18-라), (18-마) 처럼 단순 제시를 나타내는 평서문 종결어미를 통하여 사태에 대한 자신의 의향이나 생각을 객관화된 제시로 전환시킬 수 있다. 한편, (18-사)와 (18-아)에서는 상황 간접화행의 예로서 우회적으로 화자의 요구 사항이 표현되고 있다.

간접화행 공손 전략은 화자가 당당하고 확신에 찬 주장이나 의

²⁴ 여기 ‘말흐리기’로 사용되는 연결어미의 의미적 특성은 이해영(1996)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즉 완전한 발화 내용에서 단순제시의 의미적 특성, 즉 객관성을 공유하는 활용어미가 청자의 부담줄이기로 기능하는 공손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여기에 속하는 활용어미로 다음을 들고 있다: -는데, -거든, -는걸, -고, -어서, -면, -든지, -네, -구나/군, -더.

견 표출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청자의 거부감이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서 청자 스스로 상황을 파악해서 해석해 내도록 하고 있다.

3.2.12. 의문 표현

- (19) 가. 창문을 열어주시겠어요?
 나. 이 집을 봐줄래요?
 다. 파란색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 영순씨, 학교에 가시겠어요?
 마. 그런 예들이 많은 것 있죠?

여기 의문 표현도 간접화행의 일종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문장 종 결법에서 평서문은 보통 사물에 대한 설명이나 자기의 생각을 전 달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은 강렬한 화자 자신의 주관적인 경향을 띠우므로 청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쾌감을 줄 수가 있다. 의문 형은 청자에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어감을 줄 수 있다. 혹은 (19-마)와 같이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의문형도 같은 공손 효과를 갖게 된다.

결국, 요청을 포함하는 명령이나 청유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때, 청자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묻는 의문 형식으로 전환하면, 단정적인 평서문보다 간접화로 전화되어 공손의 효과를 갖게 된다. 이것은 일상 언어생활에서 매우 보편화된 공손성 실현 양상의 하나로 관찰된다.

3.2.13. 부가의문 표현

- (20) 가.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렇지요?
 나. 마영구 총통은 너무 보수적입니다. 안그래요?
 다. 우리 내일부터 일을 시작해요. 좋지요?
 라. 김치는 전세계가 인정한 웰빙식품입니다. 아닌가요?

부가의문은 화자 자신의 주장에 대해 청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책략으로 자신의 주장을 약화시키고 청자를 끌어들이는 형식으로 공손을 실현하게 된다.

3.2.14. 부정 표현

- (21) 가. 김 선생님,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나. 오늘 숙제가 너무 많지 않아요?
 다. 이게 옳을지 모르겠는데요.
 라. 우리가 이 여행을 하기로 했잖아요.
 마. 이 문제는 이미 얘기가 끝나지 않았나요.

부정 표현은 화자가 단언한 내용을 부정하는 태도로 발화 내용을 약화시키는 가장 강렬한 공손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공손의 의미를 넘어서 강조의 의미까지 나타내는 경우까지 확대되어 사용된다. 구현정(2004)은 구어 말뭉치 자료 분석을 통하여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공손 표현으로 명제 부정의 ‘-지 않다(잖아)’임을 제시하고 있다. 화자 자신에게 유리한 명제나 청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명제의 경우,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청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것을 통해 공손을 실현하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3.2.15. 완곡어 표현²⁵

- (22) 가. 병신(√ 장애인), 장님(√ 시각장애인), 벙어리(√ 언어장애인), 정신병(√ 정신장애), 정신박약(√ 학습장애) 등.
 나. 위정자(√ 정치가), 예수쟁이(√ 신앙인), 간첩(√ 정보원), 두쟁이(√ 중매인), 감옥(√ 교도소), 식모(파출부, 가정부)(√ 가사도우미), 운전사(√ 기사),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등.
 다. 변소(√ 화장실), 성교(√ 관계), 똥(√ 대변), 오줌(√ 소변) 등.
 라. 마르다(√ 날씬하다), 똥똥하다(√ 풍만하다, 몸이 나다), 늙다(√ 나이가 들다), 못생기다(√ 개성있다) 등.

어느 사회에서나 언어를 사용해서 남을 도발하거나 위협하고, 남의 호감을 사기 위한 언어 행위가 있게 마련이다.²⁶ 개의 으르렁

²⁵ 그외 완곡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호랑이→산군, 산신령, 사또; 천연두→손님, 마마, 큰손님; 산삼→심, 부리시리 등 전통 민속 문화와 관련된 금기어들이 있다. 또한 외래어 및 관용어와 속담으로 표현되는 완곡 표현들도 있다.

²⁶ 고종석(1999: 187-190). 미국의 언어학자 하야카와는 『생각과 행동 속의

거림 혹은 고양이의 가르렁거림 같이 어떤 말들은 함축하는 바가 긍정적·우호적이고, 어떤 말들은 부정적·적대적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화자의 노력은 화용적 원리로서의 공손성 책략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어휘 사용은 논리의 전개에 합리성을 부여하여 화자의 발화를 좀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만들며, 청자를 대하는 화자의 품위와도 관계 있다. 본 연구에서 완곡어라는 것은 금기어를 포함하여 모든 기피어를 기피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대체적으로 기피어는 욕설이나 저속한 유행어와 같이 그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회적 성격이 규정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완곡어 개념은 시대적으로 변하고, 문화 환경과 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공손 표현과 마찬가지로 현상적이며 당대적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즉, 개념적 의미는 같지만, 감정적 의미는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학습 현장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어 공손성의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어 학습자들은 사회언어학적 규범으로서의 높임법을 학교문법식으로 학습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언어 상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단계의 높임법을 사용하면서도 전혀 공손성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높임과 공손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국어 높임법은 사회적 언어 규범으로 '법' 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나 화자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의사소통에서의 공손성이 실현되려면 문법적 조건 이외에 화용론적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데에 본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적절한 높임법의 사용은 공손성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필요조건으로 문법적이며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는 반면 개인 책략적 성격을 가지는 비고정

언어』라는 책에서 언어의 함축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며, 으르렁말(snarl words)과 가르렁말(purr words)로 구별하고 있다. 으르렁말의 극단적인 형태는 욕설을 포함하는 각종 금기어이고, 가르렁말의 극단적인 형태는 연인에 대한 과장된 찬사나 북한에서의 김일성 부자에 대한 갖가지 존칭 수식사들일 것이다.

적이고 다양한 언어 형식으로 표출되는 공손 표현은 높임법에 상보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높은 단계의 높임법이 반드시 높은 단계의 공손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국어 언어생활 현실은 높임법을 바탕으로 하여 화자의 공손성 믿음에 따라 적극적으로 관여되는 다양한 화용론적 공손 표현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영어권에서 시발된 공손 표현 연구는 대체로 힘과 유대의 차원에서 문화 보편적이면서도 또한 문화 특성에 의한 공손성 논의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어는 서구 언어와 달리 높임법 체계가 분명하며, 이 높임법이 공손성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기본 원리인 화자 이익 관점으로 볼 때 높임법만으로는 공손성이 충분히 표현 안되기 때문에 높임법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공손 표현의 문제가 총체적 각도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화용론적 공손 표현은 사회규범적 특성을 가지고 고정 의미를 나타내는 높임법과는 달리 높임법을 기축으로 하되 화용론적 맥락에서 화자의 믿음 정도에 따라 다원화된 양상으로 공손성이 실현된다. 공손 표현 실현은 힘과 유대 관계의 정도를 조절하여 ‘겸손-친화감’ 성향을 높이고자 하는 화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작된다. 높임법과는 달리 공손 표현이 고정된 문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용론적 공손성 책략의 기초가 되는 객관성에 관련된 의미 특성이 논의 되었다. 즉 화자는 직접적이고 단정적인 말씨를 피하고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공손 표현을 통하여 청자를 우선 배려함은 물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태도를 의도적으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겸손-친화감’ 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고정적이고 비체계적으로 나타나는 다원화된 공손 표현들을 언어 학습에서 유형화를 선호하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한국어 공손성 실현 요소로 작용하는 주요 의미적 특성을 간접성으로 보고 개인 책략으로 나타나는 공손 표현 제 양상을 담화표지로서의 문법화 개념과 문법범주로서의 문법성 개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어교육에서 ‘공손성’ 문제는 높임법과 공손 표현이라는 두 공손성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인 학습 목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에서 출발했지만, 교착어 특성을 가지는

한국어 속 공손성 실현 양상이 너무 범위가 크고 다양하여 설명에 부족함이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분명한 것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정보 전달의 명료성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를 위한 언어표현의 실용성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열쇠가 되는 한국어 ‘공손성’ 제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고종석(1999), 『국어의 풍경들』, 문학과지성사.
- 교육 인적 자원부(2005), 『고등학교 문법』, 교학사.
- 구본관(2011), 「한국어 문법 교육의 현황과 과제」,
- 第一屆西太平洋韓語教育與韓國學國際學術會議, 中國文化大學, 台灣.
- 구현정(2004), 「공손법의 실현 양상」, 『담화와 인지』 11, 3, 담화인지언어학회, 1-23.
- 구현정(2005), 「담화 맥락에서의 조건 표지」, 『담화와 인지』 12, 2, 담화인지언어학회, 1-22.
- 김명운(2009), 「현대국어의 공손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김선희(2001), 『우리 사회 속의 우리말』, 한국문화사.
- 김차균(1980), 「국어의 미정 형태소의 의미」, 『韓國言語文學』 19, 韓國言語文學會, 131-157.
- 김희숙(1991), 「현대국어의 공손표현 연구- 경어법과 관련지어」,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 박영순(2007), 『한국어화용론』, 박이정.
- 서정수(1984), 『존대법의 연구: 현행 대우법의 체계와 문제』, 한신문화사.
- 서정수(1995), 『국어문법』, 뿌리깊은 나무.
- 조준학(1979), 「영어와 국어의 honorifics 비교서설」, 『영어영문학』 72, 한국영어영문학회, 325-340쪽.
- 조준학(1980), 「화용론과 공손의 규칙」, 『어학연구』 16-1, 서울대 어학연구소, 1-11쪽.
- 윤태림(1964), 『한국인의 성격』, 현대교육총서출판사.
- 이기중(2001), 『우리말의 인지론적 분석』, 역락.
- 이정애(2002), 『국어 화용표지의 연구』, 월인.
- 이정복(2001), 『국어 경어법 사용의 전략적 특성』, 태학사.
- 이해영(1996), 「현대 한국어 활용어미의 의미와 부담줄이기의 상관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익섭(1994), 『사회언어학』, 민음사.

- 이익섭(1994), 「한국어의 호칭과 경어법」, 『사회언어학』, 민음사
-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임홍빈 외(2001), 『바른 국어생활과 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유혜령(2010), 「국어의 형태·통사적 공손 표지에 대한 연구」, 『청람어문교육』, 41, 377-409.
- 최재석(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현음사.
- 허상희(2009), 「한국어 공손법에 관련된 제문제들」, 『韓民族語文學』, 第54輯, 197-221
- 허웅(1961), 「서기 15세기 국어의 존대법과 그 변천」, 『한글』, 128, 한글학회, 5-62.
- 扈貞煥(2009), 「韓國語 2人稱 代名詞 實際 使用 制限 研究: 社會的 文法에서 文化的 文法까지」, 『外國語文研究』第十期, 國立政治大學外國語文學院, 1-29.
- 扈貞煥(2012), 「韓語教育中主體敬語法之—시—의研究: 規範性及非規範性」, 『韓國學報』第23期, 중화민국한국연구학회, 83-105.
- Brown, R. & A. Gilman(1960), “The Pronouns of Power and Solidarity”, in T.A. Sebeok(ed.), *Style in Language*, MIT Press, pp. 253-276.
- Brown, P. & S. Levinson(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ll, B., S. Ide, S. Ikuta, A. Kawasaki & T. Ogino (1986), “Universals of linguistic politeness: Quantitative evidence from Japanese and American English”, *Journal of Pragmatics*, 10, 347-371.
- Ho-min Sohn(1983), “Power and Solidarity in the Korean Language”, *Korean Linguistics*, vol. 3, 97-122.
- Ide, S.(1989), “Formal Forms and Discernment: Two neglected Aspects of Linguistic Politeness”, *Multilingua*, 8, 223-248.
- Lakoff, R.(1973), “The Logic of Politeness, or Minding your P’s and Q’s”, *Proceeding of ninth regional meeting of Chicago Linguistic Society*, 292-305,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 Leech, G.N.(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A Study on ‘Politeness’ in Korean: Honorifics and Politeness Expressions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several problems related to politeness in Korean. Cross culturally politeness is considered as a major pragmatic strategy in communication. Majority of politeness studies are carried out in the English-speaking area, suggesting that politeness is based on a universal pattern and thus it is universal aspect of human communication. However, the issue of politeness in Korean should be approached differently from English and other western languages. That is, politeness in Korean primarily based on various forms of honorifics as a sociolinguistic norm which takes priority over anything else.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is that appropriate use of honorifics is the prerequisite and the necessary condition of politeness as well. However, the use of a higher level of honorifics does not necessarily mean a higher realization of politeness. Only utilizing pragmatic strategies with a firm foothold of honorifics can satisfy both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of politeness in Korean society. Besides using proper grammatical fashion as in honorifics, Korean can be more politely expressed when speakers adopt pragmatic strategies in conversation. Pragmatic politeness tactics have a strong personal inclination with various kinds of expressions. As regards pragmatic politeness, this study attempts to categorize a variety and wide range of politeness strategies into two domains: grammaticalization(discourse) and grammaticality. All strategies, that is, politeness expressions considered, individually adopted and utilized diverse strategies operate pretty much on the principle that one must place higher value on others and lower value on self, and that the mechanism of politeness must be understood as indirect and suggestive manner in order to weaken or minimize the negative effect of assertion, turning it into suggestion.

Keywords : Politeness, Honorifics,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